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사진 : 박경규 임마누엘(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예레미야서 20, 10~13

**화답송** 시편 69(68), 8~10, 14와 17, 33~35 (© 14c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 하 소 서.

1.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2.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3.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2독서** 로마서 5, 12~15

**복음환호송** 요한 15, 26, 27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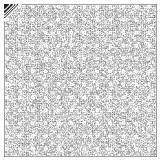
**복음** 마태오 10, 26~33

**영성체송** 시편 145(144), 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제자는 파견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중 가장 우선적인 일은 복음선포일 것이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4, 17)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 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마태 10, 8)

그러나 이러한 복음선포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박해를 각오해야만 했었다.(마태 10, 16~25 참조) 그리고 박해가 있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심지어는 순교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다. 박해와 순교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박해가 있거나 순교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박해와 순교의 상황을 찾아다닐 순 없다. 그래

서 강조하는 것이 정신적인 영역인 것 같다. 바로 순교의 정신이다. 박해의 상황은 아니고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야기되고 있으니 그 정신만큼은 지니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아닌데 상황과 다른 정신을 계속 지속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오늘날 복음선포에 있어서 힘든 것은 복음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물론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만이 잘 선포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좀 무언가 분명하게 손에 잡히지 않으니 전하다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첫째로 복음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런 것도 복음이요 저런 것도 복음이니 그냥 일반적인 윤리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것이 좋다는 식의 선포는 이제 별로 매력이 없다.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분명했으면 한다. 둘째로 시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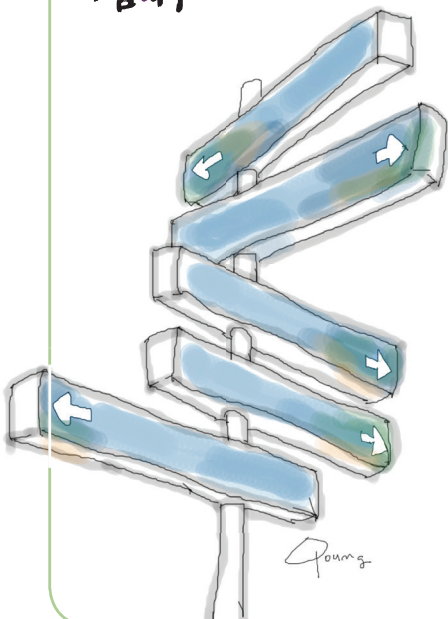
변한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 ‘하늘 나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사람들의 요구에 다 장단을 맞출 수 없지만 그래도 시대가 변한 것은 사실이니 복음의 내용도 그 설명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 셋째로 복음선포가 너무 통계적이고 양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물론 복음이 선포된 모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야 없을 수 없겠지만 여기에만 치우쳐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무엇을 전해야 만이 현대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날에는 박해와 순교가 있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방향 상실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이민  
미카엘 신부  
명촌성당 주임

## 지금 여기



## 비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떨치고 싶던 사람이  
결국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살림을 하고 싶던 사람이  
매일매일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의미는 사람마다 달라  
성공한 삶엔 높낮이가 없고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저 다양할 뿐.  
일생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일기를 쓰고 있으니 저도 지금까지 성공입니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Busan Catholic Peace Broadcasting Corporation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MHz 녹산 FM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26(월)~27(화)  
이민 신부(명촌성당 주임)  
6.28(수)~7.1(토)  
손영배 신부(천곡성당 주임)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6.27(화) 함께 하는 여정  
출연 : 문현성당 가정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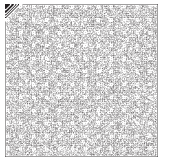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6.30(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랩으로 찬양하는  
수원교구 제치원 암브로시오

문자참여  
#2340

## 우리에게 주어진 달렌트



신 무 경 읍

하느님께서서는 저희 모두에게 개인의 능력에 맞는 달렌트를 주셨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고치는 기술을,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저희 가톨릭미술인회는 아름다운 미술 활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 문화를 향유하고 풍족한 마음과 안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톨릭미술인회는 1983년 8월에 창립하여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부산 방문 기념 창립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37회 정기전을 가톨릭센터에서 5월 30일부터 6월 6일까지 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국가톨릭미술가 협회전시를 부산교구가 주관하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라는 주제로 전국

11개 교구 198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시도 개최하였습니다.

1995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문화위원회에서 제정한 가톨릭미술상의 2013년 제18회 본상을 종교적 소재의 태피스트리를 제작해온 박수철(보나벤투라) 전 회장이 수상하였고, 본회의 많은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남산성당 문화선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양화교실의 모임 'Ars(아르스)'는 서양화를 중심으로 후보 기고와 전국 미술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각 본당의 회원들은 성물제작과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느님이 저희에게 주신 달렌트는 선물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달렌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기도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본당 일도 열심히 하며 더 많은 전시 활동으로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기초공동체의 역할과 복음화 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예술의 목적은 인간이 작품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미술인회는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렌트를 갈고 닦아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정성껏 표현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말씀의 확신을 널리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느님! 예술로써 찬미 받으소서. 저희 마음에 함께 하시듯 저희 창작에도 함께 하소서. 아멘.

■ 가톨릭미술인회 회장

### 환경과 생명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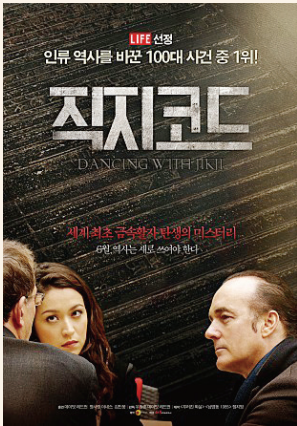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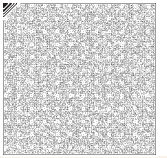
지독한 가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을 대지 못해 모내기도 못 할 지경이라는 소식조차 들립니다. 그나마 논에 벼를 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도, 밭에서는 어느 작물이고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듯 바짝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 어찌면 누군가에게는 그저 더운 초여름, 볼래지수가 올라가는 짜증 난 이상기후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슴속까지 타들어 가는 절박한 생의 고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바로 그 또 다른 누군가입니다. 이젠 비가 오면 짚신장수 아들을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우화와 같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 당신의 첫 교황 권고인 『복음의 기쁨』 53항에서 "나이트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냐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당

연한 현실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농민의 타들어 가는 심정이 나의 볼래지수보다 못한 세상은 그렇게 오늘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성을 차지고서라도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어 폭동을 일으키는 군중을 향해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주라'고 했던 말을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쌀이 없다면, 채소가 없다면 그냥 고기를, 빵을, 햄버거로 대신하면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근(飢饉)이라는 한자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飢)'는 곡식이 여물지 않아 생기는 굶주림을 뜻하고, '근(饉)'은 채소가 자라지 않아 생기는 굶주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린 곡식과 채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농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농민이 잘살 수 있는, 말이 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 우리농 본부(051-464-8495) woori-pusan@hanmail.net



### 역사를 뒤집는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 직지코드

프랑스부터 바티칸까지!  
유럽이 간직한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비밀을 밝히는 대 여정!  
총 5개국 7개 도시 횡단을 통해 완성된 다이나믹 [직지] 프로젝트!  
주인공 '데이빗' 과 제작진은 동양과 서양 금속활자 발명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밝히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다.



고려시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를 소장중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당한 제작진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추적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 너무 빨리 용서하지 마라

- 데니스 린, 실라 린, 마태오 린 지음
- 김인호, 장미희 옮김
- 성바오로출판사 ■ 11,000원



이 책은 필자들의 경험담을 통해 용서의 5단계에 대한 깊은 내적 움직임을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용서'에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 단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본질적 '진실성'을 회복하게 되고, 용서의 창의적인 해결책도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입니다.

### 토마토는 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 사라 미하엘라 올롭스키 지음 ■ 신동한 옮김
- 가톨릭출판사 ■ 12,000원



수녀님 두 분이 운영하는 '베들레헴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다섯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자신만의 희망과 행복을 찾아 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 윤민재 지음 ■ 바오로말 ■ 8,500원



제목처럼 그냥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의 추억, 안식년을 보내면서 있었던 일과 본당에서 겪었던 일들, 기도 글, 나의 신앙 고백 등 아무 꾸밈없이, 수채화 물감 번지듯, 어느 순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음에 번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구 홈페이지 '책과 나는 정답' 코너에 권장도서의 독후감을 올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나를 비난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도 없고, 상처를 준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풀릴까요?



질문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이유를 알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주어진 고통을 잘 견디고 주어진 상처에 마음을 잘 풀기 위해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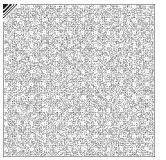
신앙인의 삶의 의미란 모든 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듯, 고통의 순간에는 그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죄 없는 분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

으셨습니다. 자신이 뽑은 제자가 배신했고,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으며, 환호했던 사람들이 분노에 차 죽이라고 악을 쓰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 역시 단순히 견디거나 버텨야 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통을 하느님이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 그 뜻을 찾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 홍성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 농촌과의 참된 연대를 위한 2017년 부산교구 신학생 농촌 활동 -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다.” (요한 15, 1)



업과 마을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또한 농촌의 현실, FTA와 직불제 등 정부의 정책,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는 농촌에 대한 학습과 나눔도 있었다.

우리 교구 신학생(부제 포함) 전원은 지난 6월 12일(월)~16일(금) 4박 5일 동안 교구 가톨릭농민회 언양분회 농가에서 농촌 활동을 하였다. 뜨거운 햇살 아래 신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논에서 피땀이 작

고동균 안젤로 신학생은 “생명의 땅을 농민들과 함께 밟고, 손과 발에 흙을 묻혀봄으로써 노동의 참된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 김인한 신부) 주관

### 가야성당, 가두선교 '구슬땀'

가야성당(주임 : 윤명기 신부, 회장 : 손성래 마태오)은 약 2개월 동안 53개 브레시디움 단원 150여 명이 가두 선교를 실시하여, 지난 6월 11일(일) 20명의 예비신자를 입교시켰다. 앞으로도 브레시디움 별로 매주 가두 선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눔 사업 실시

교구 사회사목국(국장 : 김영환 신부)은 인권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중 국내 미등록 아동들에게 생계비, 유아용품, 생필품,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최근 해운대 소재 천주교 자선 아파트 정리로 받은 보상금으로 마련한다. 교구는 해외 원조(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던 취지를 이어받아, 보상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했었다.



### 본당사무직원, 성지순례

6월 12일(월) 서울대교구 성지 일대 본당 사무직원 연합회(지도 : 김정렬 신부, 회장 : 권의준 베드로) 주관

### 땀! 건강! 친구! 복음화!



삼계, 웅상, 정관



우정, 옥동, 전하



1지구 중고등부



3지구 중고등부



우동

#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5월 28일(일) 개포초등학교 / 주임 : 신진수 신부, 회장 : 오기복 장주기요셉



6월 11일(일) 장산초등학교 / 주임 : 박용조 신부, 회장 : 안용복 안드레아



5월 28일(일) 본당 / 주임 : 오용환 신부, 회장 : 한영섭 베드로



6월 11일(일) 천호성지 / 주임 : 김평경 신부, 회장 : 김선영 루카

## 제20회 가톨릭 선교축구 연합회 춘계대회

6월 18일(일)  
기장 월드컵 빌리지  
지도 : 민병국 신부  
회장 : 조형주 요셉  
우승 : 당감, 양산성당



**부산그레고리오합창단 월미사 및 단원 모집**  
· 6.28(수) 19:30 · 망미성당 / 단장 : 김종민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있고 함께 활동하실 남성단원  
문의 : 010-7339-8545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7.4(화) 13:00~15:00 · 복산성당 소성전  
문의 : 010-2428-5785

**블레나양상블(여성중창단)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월 12:00~15:00 / 지도 : 이성훈 교수  
문의 : 010-3830-6467(김인숙 단장)

**음악교육원 최유정 오르간클래스 연주회**  
· 7.3(월) 20:00 · 만덕성당 / 연주 : 김윤나 외 8명  
문의 : 010-3923-1692, 517-8241~2

**가톨릭센터 사무실 임대(7, 8층)**  
용도 : 사무실(7층 20평, 8층 14평)  
문의 : 462-1870(행정실)

**바다의별 레지아 사무원 구함**  
자격 : 회계, PC(한글, 엑셀, PP) 능숙  
문의 : 010-9312-0821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선종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08.6.25. 박문선(야고보) 신부님

###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모임 월미사(울산)**  
· 6.30(금) 13:30(목주기도), 14:00(미사)  
·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2(성소국)

**부산교구 공원묘원 하늘공원**  
미사 : 매주 토요일 11:00 3층 경당(서틀버스 운행)  
문의 : (055)374-8732~3(관리사무실)

### 본 당

**대연성당 영어교실**  
기초반 : 10:00~10:50 화/목반, 수/금반  
중급반 : 11:00~11:50 화/목반, 수/금반  
회화반 : 12:00~12:50 화/목반, 수/금반  
· 7.4~8.31, 2개월 3만원 / 문의 : 010-8501-9250

**밀양성당 사무장 구함**  
서류 : 교적,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자격 : PC 가능자 / 문의 : (055)356-4000

###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바로로 아람터 후원회 미사**  
· 6.26(월) 10:30 · 바로로아람터  
문의 : 514-6988

**소화영아재활원 후원회 미사**  
· 6.26(월) 13:30 · 소화영아재활원  
문의 : 644-1729, 0272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연합 켈 대피정**  
· 6.26(월) 09:00~16:00 · 푸른군대 경당  
강사 및 미사 주례 : 손삼석 주교  
신청비 : 3천원(점심 제공) / 문의 : 646-3746

**노동사목 바자율미사(후원미사)**  
· 6.29(목) 19:00 · 가톨릭센터 경당  
문의 : 441-6403

**부산 미바회 후원회 미사**  
· 6.30(금) 10:00 / 세계오지선교회차량지원  
· 문현성당 / 문의 : 010-9312-4228(회장)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현대차 그룹이 운영하는 중고차 경매장  
현대클로비스 양산 중고차 경매장  
경매출품, 매입전문평가사

## 에이스모터스

조요한 (요한)  
010-8483-5393

##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래를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o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 수영역 3번출구  
기미·잡티·여드름·흉조·에스테틱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 빵장수 야곱

(성모올타리공동체)  
<건강앨범식품>  
우리말로 만든 빵(무방부제)  
292-3136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진주 홈 맞은편

## 소중한눈 안과

라식/라섹/백내장  
노안수술/안내렌즈  
대표원장. 김 승 기(요셉)  
920-7788  
센텀시티역 13번/입페리얼타워 14층

## 활기찬 성모재활센터

장기요양보험지정 뇌졸중, 치매  
재활전문 노인주간보호센터  
주만규(스테파노) 639-1008  
남구 자성로 148, 5층(문현동) 문현역 1번 출구

##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 중은애인요양병원

재활전문 요양병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진료적정성평가 1등급  
간호사 및 간병인 비율 부산최고  
뇌졸중 / 중풍 / 병중 / 척추손상 재활치료  
말기암 호스피스, 내/외과계 한방협진  
인력로타리  
봉성병원 옆 T. 520-7700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6.26(월) 19:30 전포성당
- 6.28(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교구 철야기도회(교구 찬미의 밤)
- 6.30(금) 22:30~다음날 04:00
- 28기 성령묵상회 심화과정 1단계5차 (상담봉사자교육)
- 7.1(토) 15:00~2(일) 16:00 (수료식)
- 회비 : 5만원(교재비 5,500원 별도)
- 미사, 팔기, 세면도구 자참
- 후원회 일미사
- 6.26(월) 11:00 / 점심 제공 (교통안내카드 참조)
- 수요치유기도회
- 6.28(수) 11:00~16:00 / 점심 제공 (교통안내카드 참조)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찬미의 밤)
- 6.29(목) 20:00~23:00 울산 영성의 집
- 강사 : 김대성 신부(청소년사목국장)

**평신도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대상 :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  
수강신청 : 본당 사무실, 가톨릭센터 홈페이지  
(www.bccenter.or.kr), 신학원 카페(cafe.daum.net/catholic-sinhak) / 문의 : 462-0334(월~금, 14:00~17:00), logos1981@daum.net

**교육 · 모집 · 기타**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 6.26(월) 14:00 / 문의 : (054)955-4133~4
- 부산종합사회복지관(망미성당 옆)
-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주례)

**장애분 신부와 함께 하는**  
**2017년 '8박 9일 성경 통독 피정'**  
**에는 기쁨과 사랑이 있습니다.**

**일 시.** 8월 4일(금)~12일(토)  
**장 소.** 양산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문 의.** 629-8720~2(선교사목국)

**영원한 도움의 성모 9일 기도와 미사**

- 6.27(화) 14:00 · 서면성당
- 교리강의, 미사 전 후 고해성사
- 주례 : 구속주회 신부 / 문의 : 010-7132-6379

**젊은이 여름 피정 <특! Talk!>**

- 7.1(토) 14:00~2(일) 13:30 · 양정동 성모여고
- 내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 수녀원
- 대상 : 35세 이하 여성 / 회비 : 3만원
- 진행 :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착한 목자 수녀회 / 문의 : 010-8653-8805

**와서 아침을 들어라**

- 내용 : 아빠들의 요리학교(주일 점심, 가족 초대)
- 7.8(토) 15:30~9(일) 16:00 · 성심영성센터
-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투스뽀교베네딕도회 베네딕도살이 피정**

- 7.5(수)~9(일) / 문의 : 010-8519-3431
- 대구 수녀원 / 대상 : 수도생활을 체험하고자하는 청년

**행복수녀와 함께하는 힐링피정**

- 7.11(화)~16(일) ·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 대상 : 미혼 남녀 / 회비 : 38만원
- 문의 : 010-9086-1882, 010-3340-0201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피정**

- 7.21(금)~23(일) · 충남 태안 살레시오피정센터
- 문의 : 010-3894-1332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피정**

-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 강사 : 권민자 수녀
- 3박4일 피정 : 7.6(목)~9(일), 7.23(일)~26(수)
- 8박9일 피정 : 7.11(화)~19(수), 8.9(수)~17(목)
- 40일 피정 : 10.6(금)~11.15(수)
- 청년 피정(35세 미만) : 7.29(토)~8.1(화)
-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입양 및 미혼보 상담(국내 입양 전문)  
문의 : (02)764-4741~3, www.holyfac.or.kr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7.2(일) 14:00	부산 분원	010-6271-41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7.2(일) 10:00	서울 돈암동 본부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3777-4688

**2017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2017~2021학년도 5년간 총 55억 수혜)

※ 참여학과 :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환경공학과, 산업보건학과, 환경행정학과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부산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류마티스내과 전문의 최정임 진료개시**

전문분야 :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통풍, 베체트병, 쇼그렌증후군, 섬유근통증후군

문의 : 933-7265(류마티스내과)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가톨릭센터**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2017 민중미술 소장작품전** **가야하네!**

일시. 6/9(금)~7/9(일) 10:00~18:00(월요일 휴관)

장소.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 (주관 : 가톨릭센터, 민중문화)

내용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소장 16여 점 전시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간병사(개인/공동)모집**  
**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

성별, 학력 제한없음

**818-1004, 245-1004**  
(주)천사사람들

**법무법인 센텀**

민사, 형사, 가사, 회생, 파산, 행정 등 각종법률상담

변호사. 임 경 표(세례자요한)

**912-0055, 010-7455-1031**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 수안역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여정호(루카), 조성락, 안서용, 이정현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열, 박성욱

554-1088/동래저하철역 1번 출구 맞은편

**삼성내과 엠엘영상의학과**

류마티스, 대장 내시경, MRI 내과 의학박사 : 박인호(루카), 한경문

소화기 내과 : 최병택, 문재현, 유찬희

류마티스 내과 : 서수홍(라파엘)

영상의학과 : 박재영, 윤지영

산부인과 검진 : 이우희

하단역 2번 출구 삼성메디칼 9-12층 **208-5566**

난치성두통클리닉, 어깨통증전문(비수술)

**서울제통의원**

전문의. 강 병 주(베드로)

**261-8276**

성당 **010-4132-2780**  
1오선 낮게역 2번, 4번 출구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아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

대한민국에 이력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명품 좋은연인요양병원**

신과 호수에 둘러싸인 수려한 경관, 힐링 들레길 천태산 계곡 맑고 신선한 공기, 고요한 평화로운 호텔같은 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양한방 협진) 입원우를 위한 최상의 식단과 프로그램 완비

행정부원장, 오경호(스테파노), 교우 특별 우대

**(055)350-9999, 010-9301-6735**

삼평진 양수병원소 인태호 호숫가(부산 도심에서 1시간)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자산관리

**동부증권**

개인금융 및 법인금융

탐장. 정 기 준(프란치스코)

**241-5454, 010-3186-3897**  
센텀시티역 2번 출구

**내일N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마련병원 2층) / 서구청 옆